KiEP	배포일시	2019년 2월 14일(목) 14:30	매	수	7매
	보도시기	배포시 부터	사	진	3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담 당 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안성배 실장 ☎ 044-414-1190 ⊠ sungbae@kiep.go.kr			
	배포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협력팀 ☎ 044-414-1210			

KIEP-FKI, 2019년 G5 경제전망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 논의

- KIEP, 금년 미국, EU, 중국,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하락 전망
- 이일형 금융통화위원, 구조개혁 없는 세계경제 하향조정 진입 전망
- 민간전문가들, 한목소리로 정부의 對美, 對中 통상정책 강화 촉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재영)은 중국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미·중 무역협상 난항, 노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증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 임박 등 대외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과 공동으로 2월 14일(목)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019년 G5(미, 중, 일, EU, 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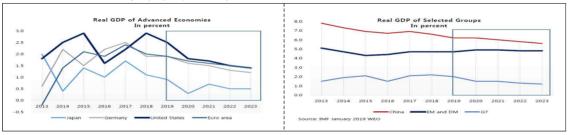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통상대 응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만 어려운 것은 아니며, 이 런 시기일수록 용기를 갖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갈등 아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기술동맹을 구축 및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디스카운트 해소도 우리가 보유한 강점으로 언급했다.

글로벌 경제,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한 향후 하향조정국면 진입 전망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한 기조적으로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진 단했다. 그 근본 원인으로 ①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② 누적된 비효율성에 따른 투자(자본) 한계효율 하락 ③ 부가가치 창출 없는 자산 확대 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④ 주요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 축 갭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세계경제 장기 성장률 전망 (2019~2023년)〉



자료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은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분쟁 지속 및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EU 역시 수출증가세 둔화 및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EU도 2018년의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2018년부터 중국 경제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경기 둔화를 보인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로 3분기 이후 투자,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의 재정역량이 양호하여 중저속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성춘 KIEP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일본의 수출 증가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설비투자 또한 전후 최고수준에 도달하 여 전환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가 미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만 개인 소비 여력과 2020년 일본 올림픽 대비 공공투자가 지속되어 급격 한 경기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윤아 KIEP 연구위원은 아세안은 올해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고 대외여 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함께 글 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민간소비와 공공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여 성장률은 작년대비 다소 둔화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전망했다.

<KIEP G5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018년	2019년
미 국	2.8%	2.3%
ΕU	2.0%	1.8%
중 국	6.6%	6.3%
일 본	1.0%	0.8%
아세 안5	5.2%	5.2%

자료 :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KIEP 전문가 주제발표

미중 통상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미, 대중 통상정책 강화 시급

이어진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민간연구소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미·중 통상전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현재의 글로벌 통상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이 제시되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외에도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법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조2025 등 지재권에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통상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한국이 생산한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 및 조립한 다음 미국이 소비하는 3국간 무역구조를 감안했을 때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우리 기업에 최대의수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붙임.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프로그램

/끝/

붙임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프로그램

FKI-KIEP 글로벌 인사이트 세미나 -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

○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4:0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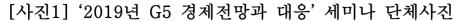
○ **장** 소 :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F 에메랄드홀

○ 주 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경련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10	◆ 인 사 말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4:10~14:25	◈ 기 조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19 글로벌 경제전망"				
	◈ 주제발표 : G5 경제전망과 리스크				
14:25-15:25	지역	주제발표자			
	1. 미국·EU	*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			
	2. 중 국	*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			
	3. 일 본	* 정성춘 KIEP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4. 아세안	* 오윤아 KIEP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 패널토론 : 글로벌 통상전쟁이 우리경제·기업에 끼치는 영향,2019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5:25-16:10	좌 장	-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금융위원장)			
	패널리스트 (3인)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NEP 1121명제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114 | FAX. 044)414-1144





(왼쪽부터)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오윤아 KIEP 연구위원, 정성춘 KIEP 선임연구위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이재영 KIEP 원장,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신광철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사진2] 이재영 KIEP 원장 개회사



(NEP 1121 전체적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114 | FAX. 044)414-1144

[사진3]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전경사진

